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보 도 자 료

창조경제 Creative Economy

2015년 7월 27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월 26일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과장 유법민(044-203-4520), 이민영 서기관(4522)
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과장 김지현(042-481-4441), 이장훈 사무관(4404)

중소기업 R&D 지원 효율화로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

- 산업부-중기청, R&D 지원사업 재편과 역할분담 추진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윤상직)와 중소기업청(청장 : 한정화)은 정부R&D 혁신방안('15.5월)의 후속조치로써, 양 부처의 중소기업 R&D 지원전략을 차별화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중소기업 R&D지원을 효율화하기로 하였다.

○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·업종 육성 등 산업전략 추진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 등을 위한 중장기·중대형 과제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,

○ 중소기업청은 '창업→중소→중견기업'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유지하면서, 공정개선 지도, 현장애로 해소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술이슈 해결을 위한 저변확대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이러한 역할분담 기준에 근거하여 양 부처는 소관별 사업 기간 조정, 사업 차별화 등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,

○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중장기기술개발 성격이 강하나 지원기간이 현재 2년인 15개 사업*은 3년으로 지원기간을 조정하고(644억원 규모), 7개 사업**은 종료한다.(230억원 규모)(※예산은 '15년 기준)

* 산업기술국제협력, 디자인혁신역량 강화,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등

** 차부품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, 클린디젤차 핵심부품 육성사업 등

○ 중소기업청은 단기 현장 중심 R&D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사업기간이 3년인 3개 사업(611억원 규모)은 2년으로 사업기간을 조정하기로 하였다.(※예산은 '15년 기준)

*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,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, 글로벌시장형창업사업화

※ 단, 지역산업 육성(국가균형발전특별법), 중견기업 육성(중견기업육성법) 등 관련 법·조직이 있고, 기관 고유 미션과 연계된 사업은 현행 유지

□ 특히, 중소기업청은 보다 많은 창업기업, R&D초보기업 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하여, 저변확대 사업의 비중을 현재 40% 수준에서 65% 이상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, 성장단계별로 지원조건과 방식은 달리할 예정이다.

○ 창업 초기기업(3년 미만)은 재무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, 인적 능력, 기술개발 아이템 등 기업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병행하며

* 창업초기기업(3년미만)은 R&D 신청제한 요건(과다한 부채비율 등) 면제

○ R&D 초보기업은 지원 횟수를 제한하여 기업이 독자적 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.

* 지원횟수 제한(안) : 첫걸음기업과제(1회), 창업기업 등 저변확대 사업(3회)

○ 또한, 기업현장 밀착형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공모 과제 비중을 80% 수준(현 62%)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이번 협력안을 계기로 중소기업R&D 지원에 있어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한편,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이민영 서기관(☎ 044-203-4522),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이장훈 사무관(☎042-481-440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